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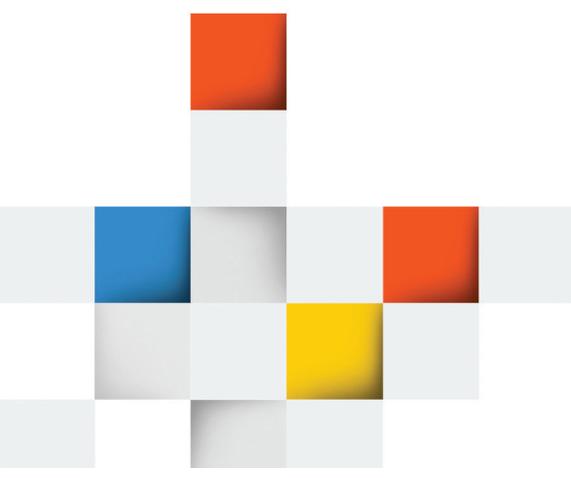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1 **2021**  
<http://sri.kostat.go.kr>



통계청  
통계개발원

# 코로나19와 청년 노동시장

권현지 (서울대학교)  
함선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코로나19 이전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의 개선 추세를 감안할 때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고용률 감소는 중장년층보다 더 큰 폭으로 전개되었다.
- 코로나19 이후 고용률 감소폭은 청년층 내에서도 졸업 후 경과기간이 짧은 신규 구직자들에게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경과기간이 1년 이내인 신규 구직자 중에서도 남성은 전문대졸 이상, 여성은 고졸 이하의 고용률 감소가 컸다.
- 학력별로는 고졸자인 청년의 고용률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일용직, 직종별로는 서비스직, 사무직에서 취업자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 단순노무직은 취업자가 증가했다. 단기 근로자 중 추가 취업 의향자도 늘어났는데, 이는 청년층에서 불완전 고용이 확대되었음을 함의한다.
- 고용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특히 전문대졸 이상 졸업 후 1년 이내인 남성 청년들은 취업 준비 상태의 비경제 활동인구로 남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고속성장 시대가 저물고 기업의 경력자 선호가 강해진 노동시장에서 청년의 입지는 계속 위축되어왔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몰고 온 경기침체는 청년에게 특히 큰 충격을 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서비스 사업침체로, 다

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신규채용 동결로, 청년은 이중의 고용위기를 겪고 있다. 독립적 생애의 출발선에 선 청년의 고용위기는 살아가는 내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이들이 자칫 통째로 잃어버린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다.

이 글에서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청년의 노동시장 경험을 기술한다. 청년집단 내에도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므로, 특히 큰 충격을 받은 취약한 이들은 누구인지,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핀다. 또한 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기에 있는 청년들의 취업 현황과 일자리 특성도 알아본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월별 원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청년은 청년기본법의 정의에 따라 15-34세로 보았다.

## 코로나19 이후 청년의 취업

우리나라에서 2020년 2월 대구지역 집단감염으로 시작된 코로나 대유행은 3월 고용타격으로 바로 이어졌다. 이 시기 중장년층 고용이 전년 동월 대비 0.8%p 하락하는 동안 청년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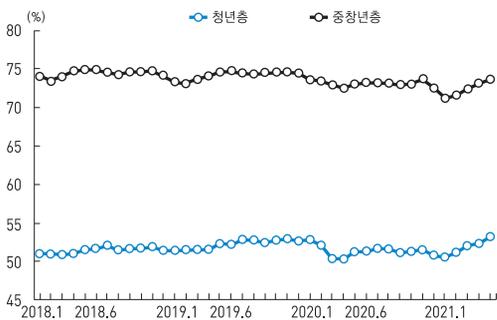
1.2%p 하락했다. 2020년 3-4월 1차 대유행 이후 다소간의 회복기를 거쳤으나 2020년 연말 3차 대유행의 충격은 1차 대유행을 넘어섰다. 2021년 1월 청년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2.4%p 하락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여 동안 청년층에 몰려 온 고용 충격은 위의 수치보다 더 크게 체감되었다. 첫째, 2018년 이후 점진적 개선 추세를 보이던 청년 고용률이 꺾였기 때문이다. [그림 V-11]이 보여주듯 코로나 이전 2년여간 하락추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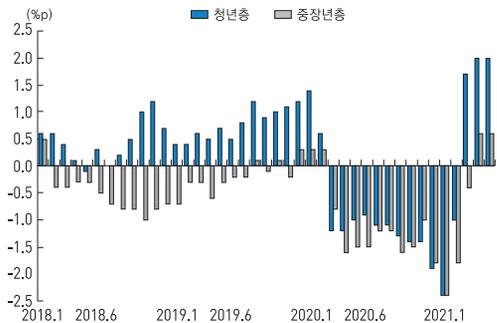
보였던 증장년층 고용률과 달리, 청년층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였다. 이를 감안하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률 하락의 체감 정도는 수치상의 하락률에 비해 컸다. 둘째, 50% 내외로 낮은 청년층 고용률은 변화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즉, 2021년 1월 3차 대유행 당시 청년층과 증장년층의 고용률은 모두 2.4%p 감소했지만, 증감률은 청년층 -4.5%로 증장년층 -3.3%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림 V-11] 청년층과 증장년층의 고용률 변화, 2018.1-2021.5

1) 고용률



2)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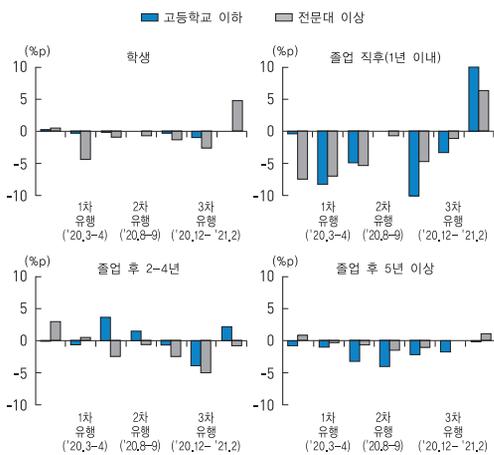
주: 1) 청년층은 15-34세 인구, 증장년층은 35-64세 인구를 기준으로 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월.

청년 집단별 고용률 변화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은 이질적 집단들로 구성된다. 예컨대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학생, 졸업 후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청년, 그리고 노동시장에 안착한 30대 등 모두 청년이라는 한 카테고리에 포함되지만, 이들에게 미친 코로나19의 영향은 같지 않았다. [그림 V-12]를 살펴보면 청년층 내에서도 가장 크게 고용률이 감소한 집단은 졸업 직후 청년이었다.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은 코로나19의 1차 유행기와 3차 유행기 당시 각각 4.3%p 내외, 2.6%p 내외로 고용률이 줄었다. 반면, 졸업 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은(이하 '졸업 직후'로 줄임) 전문대 이상 학력의 청년은 1차 유행기에 전년 동월보다 7%p 이상 고용률이 감소하였다. 1년 내내 이 감소폭이 유지되다가 2021년 상반기에는 다소간 회복의 기미가 보였다. 한편 고등학교

졸업 직후 청년의 고용률 감소폭은 대졸자보다 더 컸다. 1차 유행기 당시 8.2%p, 2차 유행기 직후 10.4%p가 줄어들었다. 한편, 졸업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2-4년)한 경력 초기 청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직후보다 3차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하반기에 고용률 감소폭이 커졌고, 2021년에 이르러서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 집단의 경우 특히 전문대 이상 학교를 졸업한 이들의 고용률 감소가 컸다.

[그림 V-12] 청년층 졸업 전후 경과기간별 고용률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2020.1-2021.5



주: 1) 15-34세 인구 중 현재 최종학교에 재학(휴학, 수료 포함) 중이거나 졸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월

여기에 성별이 만들어내는 차이도 컸다. [그림 V-13]은 코로나19 전후 고용률 변화에 있어 성별과 졸업 후 경과기간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큰 파

고를 겪은 집단은 졸업 직후 남녀, 그리고 졸업 후 2-4년이 경과한 고졸 이하 여성이었다. 남성에게 국한하면, 졸업 직후 그리고 고졸 이하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의 고용률 감소가 상대적으로 컸다. 8월경 전문대 이상 졸업 직후 남성의 고용률은 전년 동기보다 무려 12.1%p 감소했다.

졸업 후 본격적인 노동시장 진입까지 여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전문대졸 이상 남성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년보다 노동시장 진입 성공률이 현저하게 낮아졌음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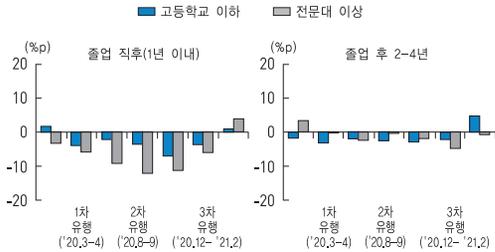
반면 여성은 경기변화에 따라 고용률이 매우 민감하게 움직였는데 여성 내부의 차이도 컸다. 졸업 직후 고졸 이하 집단의 경우 2020년 내내 전년 동기보다 큰 폭으로 고용률이 감소했다. 특히 대유행기가 되면 감소폭이 컸는데, 1차 유행기 14.4%p에 이어 2차 유행기에는 14.9%p나 감소하였다. 이들의 고용률 감소는 3차 대유행이후 전년 동기 대비 21.9%p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경기에 특히 민감하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노동시장의 특징을 보여준다.<sup>1)</sup> 한편 전문대졸 이상의 졸업 직후 여성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고용률 감소가 있었지만, 하반기에는 이전 수준으로 고용률이 회복되었다. 졸업 후 2-4년이 경과한 여성들의 경우 고졸 이하는 경기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증가 또는 감소했으며, 전문대졸 이상은 줄곧 전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1) 2021년 3월 이후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증가율은 고용률이 급감했던 2020년의 기저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착시효과를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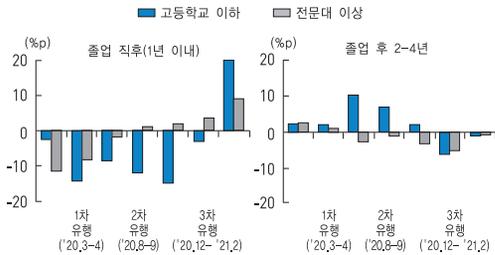


[그림 V-13] 청년층 성 및 졸업 후 경각기간별 고용률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2020.1~2021.5

1) 남성



2)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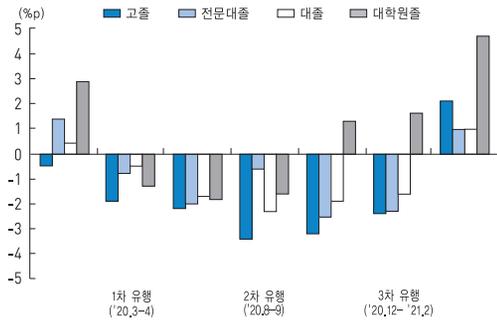
주: 1) 15~34세 인구 중 현재 최종학교 졸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월.

위에서 이미 시사했지만, 학력별 차이도 뚜렷했다. [그림 V-14]는 졸업자의 학력별 고용률 변화를 제시한 것인데, 코로나19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률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코로나19 직후 전년 동기보다 고용률이 0.5%p 감소한 이래 2020년 내내 이어져 학력집단 중 가장 큰 고용률 감소를 보였다.

한편, 대학 졸업자의 경우 1차 유행기에는 고용률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2020년 6월 이후 회복기에는 2%p 내외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대학원 졸업자는 2020년 하반기부터 고용률이

점차 개선되어 2021년에 이르러서는 코로나19 이전 고용률을 넘어설 정도로 회복이 순조로웠다.

[그림 V-14] 청년층 학력별 고용률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2020.1~20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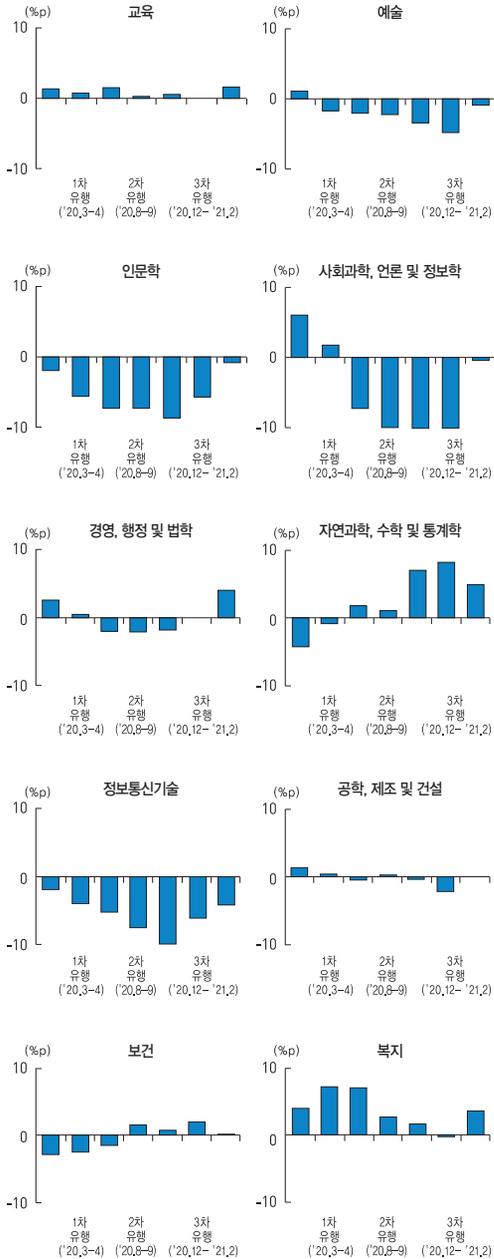
주: 1) 15~34세 인구 중 현재 최종학교 졸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중졸 이하 졸업자는 사례 수가 작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월.

전공별로도 격차를 보였다. [그림 V-15]를 보면, 예술, 인문, 사회과학 및 언론·정보학, 정보통신 기술 전공 졸업자들의 고용률 감소폭이 컸다.

특히 사회과학 및 언론·정보학 전공자는 2020년 7월 이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이 10%p를 상회할 정도로 고용률 감소가 컸다. 이 경우 코로나19 직후보다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된 2020년 3차 유행기의 고용률 감소폭이 증가한 것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전반적인 고용률 회복이 관측되었던 2021년 3월 시점에도 이들의 회복은 관측되지 않았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고용률이 개선된 전공도 있었다. 자연과학 및 수학·통계학, 복지 전공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자연과학 및 수

[그림 V-15] 청년층 대학졸업자 전공별 고용률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2020.1-2021.5



주: 1) 15-34세 인구 중 현재 전문대졸 이상 졸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월별 사례 수 100 미만인 농림어업 및 수의학 전공자는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월.

학·통계 분야 전공자들은 2020년 1차 대유행기에 고용률 감소가 상대적으로 작았을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폭의 고용률 증가가 시작되었고 2020년 12월에 이르러서는 2019년 동월 대비 고용률이 8.2%p 증가하였다. 최근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의 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산업 및 직업별 청년 일자리 변화**

코로나19 이후 감소한 고용률이 주로 어떤 산업과 직업군, 고용형태에 집중되었는지를 살펴보자. <표 V-9>는 종사상 지위, 직업, 산업, 사업체 규모별 청년층 취업자 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코로나19 이후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일용직, 직종별로는 서비스직과 사무직에서 가장 현저하게 청년 취업자가 감소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기였던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 사이 취업자 수가 월평균 28만 명 줄어들었는데, 서비스직이 축소된 일자리의 70%를 차지했다. 타격이 가장 컸던 숙박·음식점업 그리고 도소매업에 청년 임시 서비스직 저임금 종사자가 집중된 까닭이다. 당연히 이들 산업에 취업자 감소도 두드러져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3차 유행시 12만 명 이상의 취업자가 감소했다. 한편, 공공, 국방, 사회보장행정 부문 일자리는 다소 늘었다. 2020년 8-9월에는 전년 동기보다 1만 6천여 명의 취업



자가 증가하였다. 이들 취업자 수 증가는 이 시기 코로나19 관련 대응으로 공공 데이터 청년 인턴십 등 공공일자리를 확대한 정부 일자리 정책 대응의 결과로 보인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은 임시직(1만 3천명)으로 해당 정책이 일시적 대응책이었음을 보여준다.

눈여겨볼 것은 2차, 3차 대유행기를 거치며 임시·일용직 고용이 줄어든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 취업자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기반 자영 일자리와 서비스업 저임금 계약직 일자리 간 이동성을 암시한다. 같은 표에서 단순노무직이 늘어난 것도 관련된 현상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배달서비스 플랫폼 노동을 비롯한 다양한 시간제 및 도급 노동이 늘어난 것과 관련 있는 통계이다. 괜찮은 일자리 고용이 감소하는 사이, 단속적 일자리, 사회보험 사각지대에서 청년층 고용이 증가하였음을 나타낸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주로 고용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률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30-99인의 중규모 사업장의 경우 코로나19 3차 유행기인 2020년 연말에 고용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장기화 속에서 사업체의 고용 유지 노력이 포기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이들도 늘었다. 청년층에서 불완전 고용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을 함의한다. 2020년 1-2월경에는 추가 취업 가능자 규모

〈표 V-9〉 일자리 특성별 청년층 취업자 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2020.1-2021.5

	(1,000명)				
	코로나 19 발생기 (20.1-2)	1차 유행기 (20.3-4)	2차 유행기 (20.8-9)	3차 유행기 (20.12-21.2)	소강기 (21.3-5)
전체	68.6	-218.6	-225.0	-280.2	172.5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47.0	-44.5	-71.6	-36.9	128.7
임시근로자	14.1	-136.8	-146.8	-171.3	91.9
일용근로자	-36.8	-51.9	-20.9	-61.5	-51.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24.0	-26.6	-13.2	4.8	17.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48.3	35.1	40.0	10.9	2.0
직업					
전문기 및 관련 종사	27.0	-81.8	-13.7	-20.4	42.6
사무종사자	6.5	-6.9	-105.6	-66.3	22.0
서비스종사자	34.9	-77.5	-94.0	-196.9	-19.8
판매종사자	-14.9	-36.0	-18.1	-53.0	-12.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16.4	-21.7	-46.0	-2.5	14.3
정차·기계조작·조립직	11.5	-27.8	-45.6	-24.3	17.9
단순노무종사자	18.6	30.8	96.1	75.9	107.5
산업					
제조업	-20.1	-28.9	-11.5	-15.3	55.9
건설업	-11.3	-5.9	21.3	42.0	17.6
도매 및 소매업	-10.7	-43.8	-44.4	-62.8	-29.3
운수업	42.9	38.3	23.8	43.9	35.7
숙박 및 음식점업	11.8	-77.3	-100.9	-124.0	40.3
교육 서비스업	39.1	-43.2	-52.8	-38.2	25.8
보건·사회복지서비스	-46.6	-23.7	4.1	-14.2	-27.7
공공·국방·사회보장행정	-15.4	-1.1	15.9	4.1	12.7
사업체 규모					
1-4인	37.6	-118.6	-75.1	-109.1	61.9
5-9인	-20.2	-57.8	-87.6	-85.7	23.6
10-29인	-20.7	-44.2	-70.7	-24.0	32.7
30-99인	36.7	12.0	16.0	-54.0	10.0
100-299인	-23.7	-44.5	-33.1	-16.5	28.2
300인 이상	58.9	34.4	25.5	9.1	16.0
단시간 추가 취업 가능자	3.3	80.3	88.9	101.5	0.9

주: 1) 15-34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취업자 수는 해당 기간 월평균 취업자 수임.  
 3) 월별 청년 취업자 수가 20만 명이 넘지 않는 산업은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월.

가 전년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직후에 8만 명 수준으로 3차 유행기에 이르러서는 그 수가 10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2021년 3-5월에는 그 수가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2020년 같은 시기의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팬데믹 이후 취업자 수가 증가한 일자리는 단순노무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단시간 추가 취업자 등이었다. 코로나19가 청년층 노동시장에 끼친 변화는 고용의 질 하락을 동반한 고용률 감소로 요약될 수 있다. 다만, 백신접종과 함께 소비자 경기가 다소 회복된 2021년 상반기의 청년 노동시장에서는 상용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전문직 및 관련 종사자 등 상대적으로 나은 일자리 증가를 수반한 회복세가 발견되었다. 괜찮은 일자리를 기다리던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에 복귀와도 관련된다. 팬데믹 장기화 국면에서 경기에 예민하게 움직이는 동시에 내부의 고용 경험이 분화되고 있는 청년층 노동시장을 주의 깊게 추적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코로나19 이후 미취업자 현황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밖 청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우선 실업률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히려 줄었다. [그림 V-16]에 따르면 특히 전문대졸 이상 졸업 직후 남성의 경우 실업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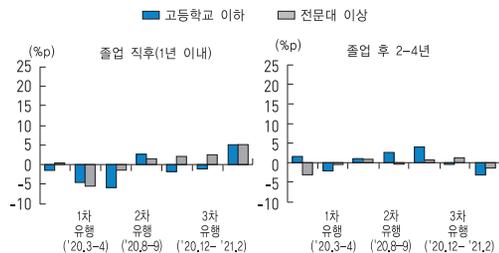
2020년 3-4월에 전년 동기 대비 5.6%p 줄었다. 같은 기간 고용률 감소폭보다 더 크게 감소하였다.

졸업 직후 여성의 경우 학력에 따라 실업률에 차이가 컸다. 고졸 이하 학력 소지자는 감소한 고용률만큼 실업률이 높아진 반면, 전문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들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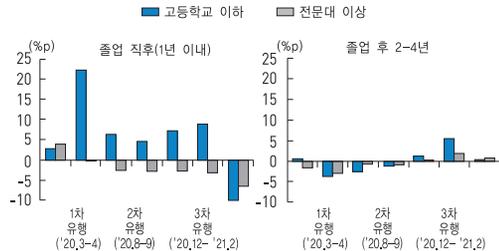
코로나19로 이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단념자는 늘었다. 졸업 직후 전문대졸 미취업자 중 20% 이상은 여기에 해당했다. 이들은 취업된다면 일할 수 있지만 전공이나

[그림 V-16] 코로나19 발생 이후 청년층 실업률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2020.1-2021.5

#### 1) 남성



#### 2) 여성



주: 1) 15-34세 인구 중 현재 최종학교 졸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실업률은 해당 집단 경제활동인구 중 조사대상주간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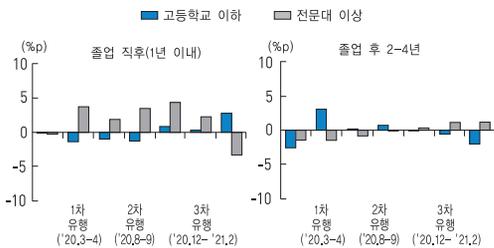


경력에 맞는 일자리나, 근로조건 등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서 직장을 구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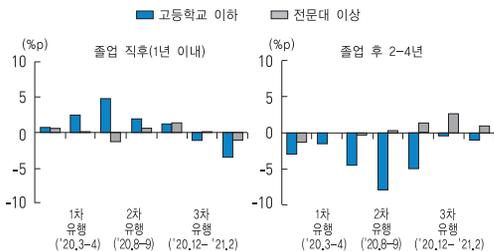
[그림 V-17]에 따르면 구직단념자 비율은 특히 졸업 직후 전문대졸 이상 남성 집단에서 코로나 1차 대유행 당시 전년 동기 대비 3%p 이상 증가했다. 또한 2020년 9-10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4.3%p 증가하기도 했다. 졸업 후 2-4년이 경과한 전문대졸 이상 남녀 역시 2020년 연말에 그 비율이 전년 동기 각각 1.2%p, 2.7%p 증가했다. 2020년 하반기 일자리를 찾지 못한 고학력 청년의 상당수가 구직단념자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V-17] 청년층 성 및 졸업 후 경과기간별 구직단념자 비율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2020.1-2021.5

1) 남성



2) 여성



주: 1) 15-34세 인구 중 현재 최종학교 졸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구직단념자 비율은 해당 집단 인구 중 지난 1년간 구직경험이 있고,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취업이 된다면 일을 할 수 있지만, 전공이나 경력, 근로조건 등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서 조사대상주간 직장을 구하지 않은 자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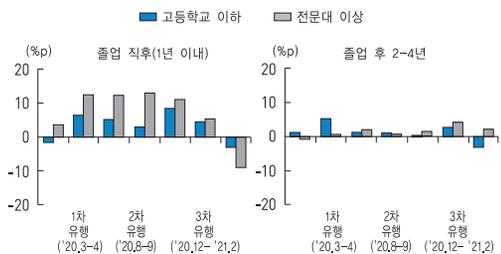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월.

고등학교 졸업 이하 청년의 경우 대부분의 집단에서 구직단념자가 감소했으나, 졸업 직후 여성은 2020년 11월까지 0.7-4.8%p의 증가를 보이다가 2020년 연말 이후에야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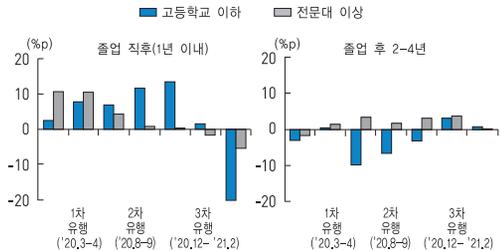
청년층 미취업자 중에서도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상당수는 졸업과 함께 노동시장에 바로 뛰어들어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기보다는 현재 노동시장 상황에서 일을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가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림 V-18]이 보여 주듯이 청년층 내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했는데, 특히 전문대 이상 졸업 직후 남성

[그림 V-18] 청년층 성 및 졸업 후 경과기간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2020.1-2021.5

1) 남성



2) 여성



주: 1) 15-34세 인구 중 현재 최종학교 졸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해당 집단 인구 중 조사대상주간 취업을 하지 않았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월.

청년의 경우 그 비율이 10%p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전문대 이상 졸업 직후 여성의 경우, 2020년 하반기로 접어들며 상당수가 취업하거나 구직활동을 통해 노동시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의 전반적 하락과 불안정 일자리의 증가가 지속되는 사이, 남성이 상대적으로 기다리는 양상을 보인 것과 달리, 여성은 일자리 질이 낮더라도 노동시장에 상대적으로 빨리 진입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문대 이상 학교를 졸업한 후 2-4년이 경과한 청년의 경우, 여성과 남성 공히 3차 대우행기 고용률 감소, 구직단념자 증가, 비경제활동인구 증가가 함께 관측되고 있다. 졸업 이후 패시 시간이 경과했으나, 위기 국면에서 노동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준비 상황에 머물러 있거나 낙담한 상태에 있는 청년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될 개연성이 높은 집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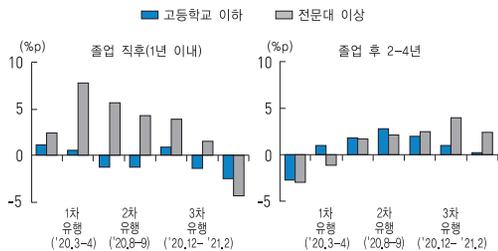
이들 내부의 성별 차이에도 주목을 요한다. 졸업 후 2-4년이 경과한 전문대졸 이상 남성의 경우, 취업 준비자 비율이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0년 12-2월경 그 비율은 전년 동기보다 4%p가량 증가했다(그림 V-19). 추가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취업준비를 장기화하는 이들이나 괜찮은 일자리를 위해 새로 준비에 들어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이들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같은 범주의 여성 청년들은 같은 기간에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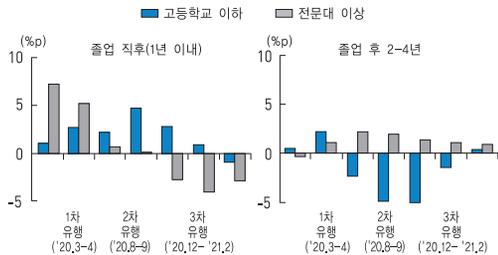
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비율이 남성만큼 늘어나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 질 낮은 일자리를 수용하는 비중도 남성에 비해 높고, 괜찮은 일자리를 위한 준비에 투자할 여력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림 V-19] 청년층 성 및 졸업 후 경과기간별 취업 준비자 비율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2020.1-2021.5

1) 남성



2) 여성



주: 1) 15-34세 인구 중 현재 최종학교 졸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취업준비자 비율은 해당 집단 인구 중 조사대상주간 주된 활동상태가 취업 목적의 학원, 기관 통학이나 취업 준비 중인 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월

**졸업 후 첫 일자리**

코로나19 국면에서 청년들이 졸업한 후 갖게 되는 첫 일자리의 질도 하락했다.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해, 조사연도를 기준으로 이전 3년 동안 졸업한 이들을 대상으로 첫 일자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표 V-10〉을 살펴보면, 우선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비율이 2021년 47.1%로 2019년과 2020년의 41.9%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시간제 역시 2019년 31.7%에서 38.3%로 크게 늘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청년이 시간제 일자리로 노동시장 경험을 시작하는 비중이 높았다. 여성은 학력과 무관하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021년에는 시간제 근로자로서 졸업 후 첫 일자리를 경험한 비중

이 5%p가량 높아졌다.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고졸 첫 일자리의 50% 이상이 시간제였던 남성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 학력층에도 첫 일자리를 시간제로 시작하는 비율이 확대되었다. 2019년 21.5%에서 2021년 35.1%로 그 비중이 13.6%p 높아졌다.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질이 노동시장 내 장기적인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향후 지속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V-10〉 청년층 졸업 후 첫 일자리 중 1년 이하 계약직 및 시간제 근로자 비율, 2019-2021

	(%)		
	2019	2020	2021
1년 이하 계약직 비율	41.9	41.9	47.1
시간제 근로자 비율	31.7	34.4	38.3
남성			
전문대 이상	21.5	32.7	35.1
고졸 이하	57.4	40.9	55.7
여성			
전문대 이상	31.3	33.6	36.1
고졸 이하	44.4	47.3	49.9

주: 1) 30세 미만 청년의 응답 결과임. 조사연도 기준 2년 전부터 조사연도까지 3개년 사이에 학교를 졸업한 이들을 대상으로 작성함. 예를 들어 2021년 응답자의 경우 2019, 2020, 2021년 졸업자만을 포함함.  
2) 학교 졸업 전에 첫 일자리를 구한 이들을 제외하고 계산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5월

### 맺음말

코로나19에 따른 고용타격으로 청년층은 2020년 한 해 동안 실직과 입직의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청년층 내에서도 집단간에 상당히 다른 양상을 드러냈다. 고용률 감소는 졸업 후 1년 이내인 고졸 이하 여성 청년들에게서 가장 높았던 반면, 구직단념자나 취업준비 중인 이들은 주로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청년 남성 집단에서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연령 집단으로 포괄되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학력과 졸업 후 경과기간, 그리고 성별에 따라 각기 달리 코로나19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